

SONG JAE HO

6 June - 11 July 2009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기억의 편린



Untitled, Acrylic on canvas, 162.2 x 130.3 cm, 2009

송재호 작가, 오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아이엠아트에서 개인전 개최

그동안 감각적인 색감, 독립적인 모티브, 서정적인 시선으로 평단에서 주목받아온 작가 송재호가 개인전을 개최한다. 오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아이엠아트(IMART)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작가는 섬세한 감정의 움직임과 언어가 조화롭게 표현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송재호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은밀하고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을 그만의 은유적인 방법으로 캔버스 위에 표현했다.



Tonsorial. Acrylic on canvas, 80.3 x 100 cm, 2008



self-portrait, Acrylic on panel,
83 x 124 cm, 2001



Cafe soho, Acrylic on cotton, 120 x 95 cm, 1999

작가는 본연의 의도로 표현된 대상이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추상적인 선이나 도형들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저 이 모티브들은 구체적인 대상이라기 보다는 그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로 파악되며, 때로는 상징성을 띄고 있기도 하다.

한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송채호는 IMART&ARTISTI 展을 시작으로 IMART 전속작가로 국내외 전시를 비롯해 다수 아트페어에 참여해 실력을 인정받아 온 젊은 작가다.

 이수인 기자